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용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 longitudinal study of the stress factors of parents betwee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the risk of school interrup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Appl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Hyoung-H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추적한 다섯 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스트레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과 세 요인 간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5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5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이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켜 학업중단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스트레스,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Abstract In this stud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pplied a self-registering model to verify the patterns of parental stress, multicultural youth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interdependence between three factors by using five-point-time data tracked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Parent's stress at the time of the five survey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the risk of academic interrup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that point. Second, the psychological mal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the time of the previous five survey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risk of academic interruption at that poin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various support measures were proposed to cope with the stress of multicultural youth parents,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prevent the risk of academic interruption by reducing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Stres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risk of academic interrup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Corresponding Author : Hyoung-Ha Lee(hhlee62@kwu.ac.kr)

Received April 18,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6,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건으로 국제결혼 비율은 3.5%이었으나, 이후 베트남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19년 다문화가정 자녀는 264,626명이며, 초등학생 103,881명(75.7%), 중학생 21,693명(15.8%), 고등학생 11,234명(8.2%)을 차지하고 있다[1].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0.66%, 중학생 0.73%, 고등학생 1.62%로 나타났고, 다문화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 0.87%, 중학생 1.34%, 고등학생 1.91%로 나타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중단률이 증가하고 있다[2].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3]. 이러한 이중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속함과 동시에 요구되는 과제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사회에 진입하여 학교적응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마주하게 된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외문화 문제보다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4].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령기 자녀의 우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 두려움 및 문화충격, 사회적 고립, 불신, 차별감, 열등감 등이 자녀의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다문화청소년은 또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8]. 다문화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인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위축도 사회적 지지나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진로결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다루는 선행연구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관한 연구[10,11],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연구[9],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12]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특정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학업중단과의 관련성 연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나 일상생활스트레스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과의 연관성을 다루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볼 때 2000년 즈음에 출생하고 성장한 청소년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진학해 온 과정에서 부모의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들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청소년과 비교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학업중단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추적한 다섯 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 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사용하여 부모의 스트레스(문화적응스트레스, 일상생활스트레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우울, 사회적 위축), 학업중단위험(가정 내 요인, 학교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상과 세 요인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켜 학업중단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학업중단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는 시간의

-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5.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학업중단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학업중단 개념과 학업중단 요인

학업중단은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의 정규과정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전(2020)에 의하면, 학업중단은 정규학교 소속자 중 비행이나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중단위험을 현재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학교를 중단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의 청소년으로 설명한다[11,13-16]. 이러한 학업중단위험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교사와의 갈등, 학업을 비롯한 학교 내 활동에 대한 부적응, 가족과의 갈등,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감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9, 16].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위험에는 집단따돌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 언어이해력 부족, 학교생활부적응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17,18].

2.2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과의 관계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외모의 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사용에서의 제한, 또래로부터 따돌림, 학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한다[19,20]. 이에 더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해

관심이나 지지를 보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방임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키고, 교육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학습지도의 어려움과도 연결되어면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저해한다[5,21,22]. 특히 결혼이주와 같이 이주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부모 본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도 한다[23]. 즉, 다문화 배경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24],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 부적응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비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결과로 이어진다[2,9].

한편, 청소년의 높은 우울증은 위험 회피와 낮은 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을 공유한다[22,25-27]. 사회적 위축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려는 경향성을 말하며[28,29], 이는 대인관계 장면에서 지나치게 움츠러들거나 긴장하는 신체적·정서적 반응과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적 특성을 포함한다[22,30,31]. 학교라는 공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사회적 기술을 익히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곳이지만, 사회적 위축 상황에 처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학습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소속만 된 채 언제든 학교생활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학업중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MAPS) 4차년도(2014년), 5차년도(2015년), 6차년도(2016년), 7차년도(2017년), 8차년도(2018년)의 학부모와 학생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4차년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이고, 8차년도는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이다. 2021년 현재 8차년도까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2014년) 기준 학부모 1,635명, 학생 1,63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모의 스트레스는 ‘한국의 문화적응 스트레스’(cul_str_4~cul_str_8)와

‘일상생활 스트레스’(dai_str_4~dai_str_8) 2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dep_4~dep_8)과 ‘사회적 위축’(atropy_4~atropy_8) 2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sch_interrup_4_1~sch_interrup_8_2)은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Fig 1과 같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도식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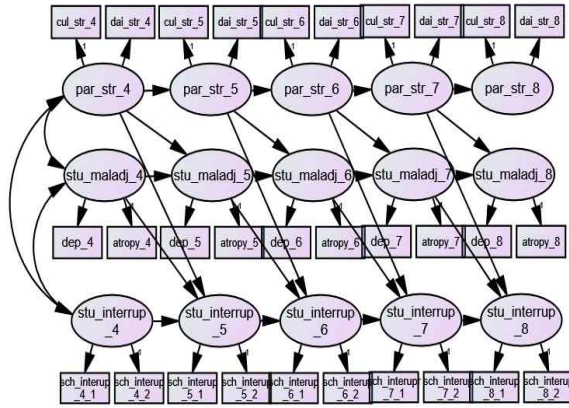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3 측정변수

3.3.1 부모의 스트레스

잠재변수인 부모의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스트레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anduhu와 Asrabadi[32]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이승종[33]이 번안하고, 이소래[34]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등 총 8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4차년도 .885, 5차년도 .874, 6차년도 .878, 7차년도 .864, 8차년도 .867이었다.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longis 등[35]이 개발하고 김정희[3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었다” 등 총 8문항,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4차년도 .874, 5차년도 .890, 6차년도 .880, 7차년도 .887, 8차년도 .886이었다.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측정 척도에 대한 문항내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daily life stress measurement scale

Variable name	Variable name
cultural adaptation stress	I am treated differently from Koreans in my social life.
	Koreans have a prejudice that I'm from abroad.
	I'm tired of longing for my hometown.
	I'm sad to leave my hometown and liv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I miss where I was born and the people.
	I am angry at the disregard for foreigners.
	I'm daunted by the reason I'm from abroad.
	I feel my social status is low because I'm from abroad.
daily life stress	I was worried about the children
	I was worried about my husband
	I was worried about my friend
	I was worried about my mother-in-law or family members.
	I was worried because of my pro-government mother or my family.
	I was worried about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I was worried about the health of my family.
	I was worried about my obligations to my family.

3.3.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잠재변수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등[37]이 개발하고, 이경상 등[38]이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피하고 우울해한다” 등 총 10문항,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4차년도 .918, 5차년도 .907, 6차년도 .905, 7차년도 .914, 8차년도 .910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김경연[39]의 아동 및 청소년 행동문제 척도를 이경상 등[38]이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 총 5문항,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4차년도 .909, 5차년도 .903, 6차년도 .908, 7차년도 .908, 8차년도 .908이었다.

다문화청소년부의 사회적 위축 척도에 대한 문항내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Multicultural Youth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cale

Variable name	Variable name
Depression	I have little energy.
	I feel unhappy or feel sad and depressed.
	I have a lot of worries.
	I feel like I want to die.
	I am good at crying.
	I often think it's because of me when something goes wrong.
	I am lonely.
	I am not interested and interested in everything.
	I don't think the future is hopeful.
	I'm struggling with everything.
Social atrophy	I am awkward when there are many people around.
	I am very shy.
	I have a hard time telling others my opinions clearly.
	I am shy.
	I don't like to be in front of people.

3.3.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

잠재변수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은 이자영 외[16]의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요인과 학교요인 2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가정 내 요인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부모와 자주 싸운다” 2문항, 학교요인으로는 “나는 학교에서 머리, 옷, 담배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술, 담배, 머리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4문항, 총 6문항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이 높다

Table 3. Multicultural Youth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cale

Variable name	Variable name
Risk of school interruption	I hate that school regulates hair, clothes, cigarettes, etc.
	If I leave school, I think I will be able to act freely (alcohol, cigarettes, hair, etc.).
	I think it would be good to get into society as soon as possible.
	I want to make money quickly.
	"I fight with my parents often.
	I don't want to go home.

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위험의 신뢰도는 4차년도 .764, 5차년도 .768, 6차년도 .728, 7차년도 .744, 8차년도 .737이었다.

다문화청소년부의 학업중단위험에 대한 문항내용은 Table 3과 같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8.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의 점검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측값은 EM대체법을 사용하고 이상치를 검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는 최대우도추정(FIML) 방식을 적용하여 χ^2 검증 및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단계별 모형 비교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TLI, CFI, RMSEA를 함께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4차년도(2014년)의 부모의 스트레스 하위요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하위요인, 학업중단위험 하위요인 등 주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1)	1					
(2)	.230**	1				
(3)	.097**	.056*	1			
(4)	.099**	.047	.467**	1		
(5)	.002	.038	.212**	.042	1	
(6)	.048	.080*	.419**	.165**	.504**	1
Mean	19.758	14.465	16.415	11.313	6.218	4.524
S.D.	6.307	4.945	5.344	3.695	2.258	1.612
Skew	.357	.778	.515	-.160	.232	.771
Kurtosis	-.052	.351	-.447	-.631	-.564	-.167

**p<.01

(1) cu_str_4, (2) dai_str_4, (3) dep_4, (4) atropy_4, (5) sch_interrup_4_1, (6) sch_interrup_4_2

기술통계 분석결과, 주요 변인의 평균값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9.7586(S.D.=6.307),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14.464(S.D.=4.945),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16.415(S.D.=5.344), 사회적 위축 11.313(S.D.=3.695), 학업중단위험 중 가정 내 요인 6.218(S.D.=2.258), 학업중단위험 중 학교요인 4.524(S.D.=1.612)이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인 모두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7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40].

상관관계 분석결과,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r=230, p<.01),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r=097, p<.01), 사회적 위축(r=099, p<.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 중 학교요인(r=080, p<.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r=467, p<.01), 학업중단위험 중 가정 내 요인(r=219, p<.01), 학교 요인 (r=412, p<.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학업중단위험 중 학교 요인(r=165, p<.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 중 가정 내 요인과 학교 요인(r=504, p<.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인 부모의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Table 5와 같이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13.533(df=75, p=.000<.001)$, GFI=.974, TLI=.968, CFI=.977, RESEA=.0044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5. Goodness-of-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Model	χ^2	df	χ^2/df	GFI	TLI	CFI	RESEA
Measuring	313.533	75	4.180	.974	.968	.977	0.044
Standard	χ^2/df 5이하		.90이상		1.00이하		

변수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수를 계산한 결과, Table 6과 같이 3가지 요인에 대한 구성개념 신뢰도의 일반적인 추천 기준치인 .70보다 높게 나타났고, AVE값의 경우는 학업중단위험을 제외하고 기준치인 .50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41]. 다만, 학업중단위험 요인의 경우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χ^2 차이가 유의($\chi^2 = 29.344 > 5.99, p < .001$)하게 나타나 관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concentrated feasibility evalu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Estimate		S.E.	C.R.	AVE	CR
		B	B				
par_str	par_str_4	0.732	0.961	0.0320	30.0209	0.608	0.861
	par_str_5	0.766	0.995	0.0314	31.7037		
	par_str_6	0.832	1.106	0.0316	35.0486		
	par_str_7	0.831	1.070	0.0306	34.0163		
	par_str_8	0.784	1.000				
stu_maladj	stu_maladj_4	0.606	0.760	0.031	23.946	0.586	0.875
	stu_maladj_5	0.715	0.893	0.033	24694		
	stu_maladj_6	0.746	0.939	0.031	30.065		
	stu_maladj_7	0.799	.989	0.031	31.508		
	stu_maladj_8	0.801	1.000				
stu_interrup	stu_interrup_4	0.468	0.816	0.057	14.204	0.423	0.783
	stu_interrup_5	0.609	1.039	0.060	17.210		
	stu_interrup_6	0.714	1.119	0.060	18.515		
	stu_interrup_7	0.602	0.978	0.047	20.415		
	stu_interrup_8	0.606	1.000				

4.3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른 상호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동일성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그것이다.

모형은 총 13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 어떠한 제약(constrained)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모형 2: 잠재변인인 ‘부모의 스트레스’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a1)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모형 2에 추가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b1)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모형 3에 추가하여 ‘학업중단위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c1)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모형 4에 추가하여, 각 시점별 '부모의 스트레스' 자기회귀계수(A)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모형 5에 추가하여, 각 시점별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자기회귀계수(B)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7: 모형 6에 추가하여, 각 시점별 '학업중단위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모형7에 추가하여, '부모의 스트레스'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D)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9: 모형 8에 추가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서 '학업중단위험'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E)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0: 모형 9에 추가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서 '학업중단위험'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F)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1: 모형 10에 추가하여, '부모의 스트레스'에서 '학업중단위험'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G)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2: 모형 11에 추가하여,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간의 오차공분산(H)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3: 모형 12에 추가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 간의 오차공분산(I)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우선 13개의 모형 가운데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1부터 모형 13까지 순차적으로 두 개의 모형씩 비교하였다. 모형의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을 Table 7과 같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FI, NFI와 RMSEA 지수가 비교모형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으면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LI와 CFI가 0.9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 0.95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며, 그리고 RMSEA가 0.06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0.08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4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인 Δ CFI 값이 특정모형과 비교해 .01를 초과하지 않았고, Δ TLI와 Δ RMSEA 지수도 각각 기준(Δ TLI<.02, Δ RMSEA<.015)을 충족하고 있어 모형의 동일

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모형 비교의 과정은 Table 7에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화 제약이 가장 많이 가해져 간명한 모형 13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 13의 적합도는 TLI=.956, CFI=.965, RMSEA=.036으로 수용할만한 기준으로 나타났다[42, 43].

Table 7. Model goodness-of-fit verification results

Model	χ^2	df	TLI	CFI	RESEA (90% CI)	$\Delta\chi^2$	Δ df	Δ CFI
Mo1	950.065	306	.958	.970	.035 (.033~.038)			
Mo2	968.826	310	.958	.970	.036 (.033~.038)	18.761**	4	0
Mo3	982.700	314	.957	.969	.036 (.033~.038)	13.444*	4	-.001
Mo4	1002.943	318	.957	.968	.036 (.033~.038)	20.243***	4	-.001
Mo5	1013.223	321	.957	.968	.036 (.033~.038)	10.280*	3	0
Mo6	1034.477	324	.956	.967	.036 (.034~.039)	21.254***	3	-.001
Mo7	1057.907	327	.955	.966	.037 (.034~.039)	23.430***	3	-.001
Mo8	1077.591	330	.955	.966	.037 (.034~.039)	19.684**	3	0
Mo9	1091.041	333	.955	.965	.037 (.034~.039)	13.450**	3	-.001
Mo10	1097.060	336	.955	.965	.037 (.038~.039)	6.019	3	0
Mo11	1099.755	339	.955	.964	.037 (.034~.039)	2.685	3	-.001
Mo12	1112.460	342	.955	.965	.037 (.034~.039)	24.705***	3	.001
Mo13	1112.797	345	.956	.965	.036 (.034~.039)	15.337***	3	0

p<.05, *p<.001, ****p<.001

최종 연구모형인 모형 13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8과 같다. 첫째, 5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891\sim.933$, $p<.001$). 5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705\sim.767$, $p<.001$). 또한, 5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은 이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442\sim.517$, $p<.001$). 일반적으로 자기회귀계수는 안정성 계수로 해석되므로 이 검증 결과는 이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은

Table 8. Path coefficient between variables

Path	B	S.E.	<i>B</i>	C.R.
par_str_4 → par_str_5	.946	.015	.933***	61.811
par_str_5 → par_str_6	.946	.015	.923***	61.811
par_str_6 → par_str_7	.946	.015	.909***	61.811
par_str_7 → par_str_8	.946	.015	.891***	61.811
stu_maladj_4 → stu_maladj_5	.729	.012	.705***	56.794
stu_maladj_5 → stu_maladj_6	.729	.012	.714***	56.794
stu_maladj_6 → stu_maladj_7	.729	.012	.736***	56.794
stu_maladj_7 → stu_maladj_8	.729	.012	.767***	56.794
stu_interrup_4 → stu_interrup_5	.468	.019	.463***	24.119
stu_interrup_5 → stu_interrup_6	.468	.019	.517***	24.119
stu_interrup_6 → stu_interrup_7	.468	.019	.442***	24.119
stu_interrup_7 → stu_interrup_8	.468	.019	.509***	24.119
par_str_4 → stu_maladj_5	.016	.006	.032**	2.661
par_str_5 → stu_maladj_6	.016	.006	.031**	2.661
par_str_6 → stu_maladj_7	.016	.006	.033**	2.661
par_str_7 → stu_maladj_8	.016	.006	.036**	2.661
stu_maladj_4 → stu_interrup_5	.109	.012	.105***	8.725
stu_maladj_5 → stu_interrup_6	.109	.012	.120***	8.725
stu_maladj_6 → stu_interrup_7	.109	.012	.116***	8.725
stu_maladj_7 → stu_interrup_8	.109	.012	.125***	8.725
par_str_4 → stu_interrup_5	.040	.008	.081***	5.060
par_str_5 → stu_interrup_6	.040	.008	.091***	5.060
par_str_6 → stu_interrup_7	.040	.008	.088***	5.060
par_str_7 → stu_interrup_8	.040	.008	.100***	5.060

p<.01, *p<.001

이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자기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부모의 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점차 증가하고, 학업중단위험은 중2에서 중3으로 승급할 때와 고1에서 고2로 승급할 때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쳤다($B=.031 \sim .036, p<.01$). 5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이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쳤다($B=.105 \sim .125, p<.001$). 또한, 5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쳤다($B=.082 \sim .100, p<.001$). 다만, 부모의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자기회귀계수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이 학업중단위험에 이르는 경로의 자기회귀계수 값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고, 부모의 스트레스가 학업중단위험에 이르는 경로의 자기회귀계수 값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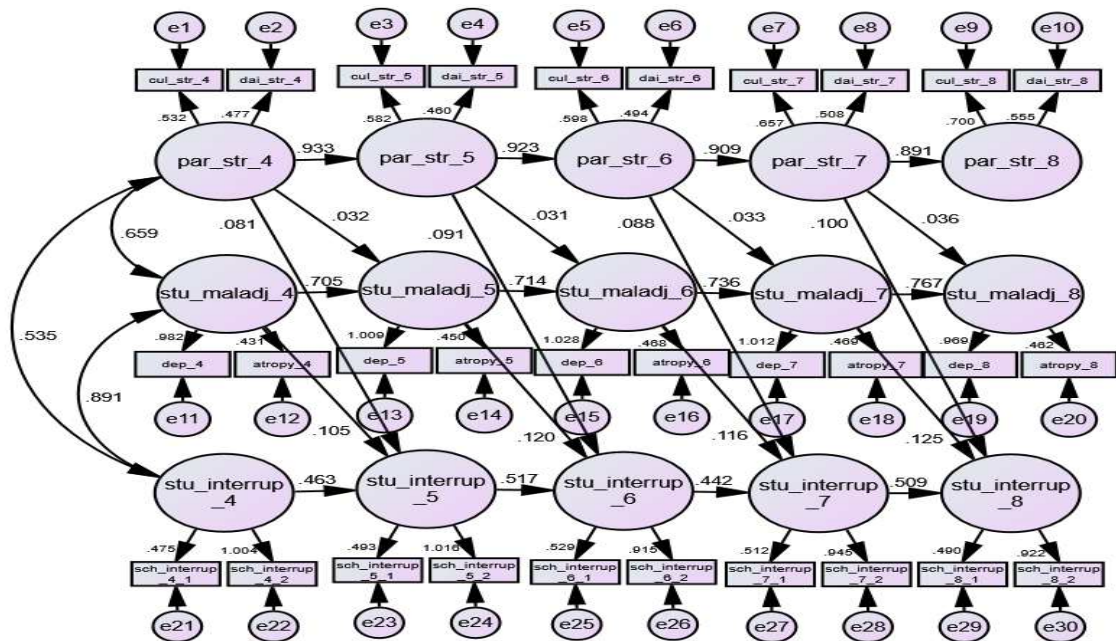


Fig. 2. Path Diagram of Standard Coefficients of Final Model 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인 MAPS의 자료 중 중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2014년, 2015년, 2016년의 3개년 자료와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2017년, 2018년의 2개년, 총 5개년 다문화청소년과 부모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사이의 영향을 중단적으로 분석하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문제 1(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 지속성)과 관련하여,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B=.933 \rightarrow B=.923 \rightarrow B=.909 \rightarrow B=.891$)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잠재변수 \rightarrow 측정변수 경로 간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표준화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532, .582, .598, .657, .700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표준화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477, .460, .494, .508, .555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 비롯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한국의 문화와 시대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고, 사회적 지지체계마저도 미미한 상태에서 부과되는 자녀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일상생활스트레스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선행연구[7, 44-48]와 맥을 같이한다. 비록 한광현·강상경[49]의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값)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소 감소(1차년도 1.60 \rightarrow 7차년도 1.42)하는 추세지만,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문화생활스트레스(자기회귀계수)의 영향력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부모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출신국별 자조모임 지원방안, 부모 혹은 아내 나라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스트레스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문제 2(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지속성)과 관련하여,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

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B=.705 \rightarrow B=.714 \rightarrow B=.736 \rightarrow B=.767$)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잠재변수 \rightarrow 측정변수 경로 간 다문화청소년 우울의 표준화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982, 1.009, 1.028, 1.012, .969로 \cap 자 패턴을 보여주었고,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의 표준화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431, .450, .468, .469, .462로 \cap 자 패턴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잠재변인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오랜 혈통주의 인식이 강하여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 있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또래친구의 따돌림, 외모의 차이에 따른 차별 등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는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져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50,51]. 따라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통의 어려움과 차별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지지적 역할의 강화와 더불어 또래집단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동아리 활동과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문제 3(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 지속성)과 관련하여,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에 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증가 \rightarrow 감소 \rightarrow 증가하는 추세($B=.463 \rightarrow B=.517 \rightarrow B=.442 \rightarrow B=.509$)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잠재변수 \rightarrow 측정변수 경로 간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위험에 대한 가정 내 요인의 표준화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475, .493, .529, .512, .490로 \cap 자 패턴을 보여주었고, 학교 내 요인의 표준화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1.004, 1.016, .915, .945, .922로 \cap 자 패턴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내 학업중단위험과 학교 내 학업중단위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잠재변인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은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경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성 부족[11,52]으로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고 학교공부나 학교생활의 적응력 저하 등이 학업중단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11,46]. 따라서 학업중단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실제로 학업중단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와 함께하는 상담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문제 4(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의 인과관계)과 관련하여,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B=.032 \rightarrow B=.031 \rightarrow B=.033 \rightarrow B=.036$)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에 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B=.081 \rightarrow B=.091 \rightarrow B=.088 \rightarrow B=.100$)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적 차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교육의 어려움 등의 스트레스는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학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학업중단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5,9,19-22]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방안 개발과 일상생활스트레스 줄여나기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수용성 교육의 확대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이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문제 5(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 간의 인과관계)과 관련하여,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에 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B=.105 \rightarrow B=.121 \rightarrow B=.116 \rightarrow B=.125$)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하면 학교적응이 낮아지며[9],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 및 관계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17,53-55]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는 담임교사가 평소 위축되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나 우울 증세를 나타내는 다문화청소년을 발굴하여 학교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가와 함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의 진로계획을 준비하고 탐색할 수 있는 상담코칭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학업중단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즈음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의 중단적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전 시점의 부모의 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적극 대처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은 이후 시점의 학업중단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또래집단의 다문화수용성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모형의 검증결과,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사이의 관계가 중단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 검증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일부 요인간의 영향력을 횡단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청소년 간에는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중단위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출생지 차이에 따른 학업중단위험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교사관계, 또래관계, 지역사회 요인 등의 가정 밖의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도 학업중단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매커니즘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Status of foreign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in 2019. <https://www.mois.go.kr/commonSelectBoardArticle>
-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 2020 Basic Education Statistics Results. <https://kess.kedi.re.kr/post/6706365>
- [3] H. S. Jang & M. Woo. (2007). Social adaptation status of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development

- plan for social adaptation program.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2007*. 87-88.
UCI : I410-ECN-0101-2009-334-016322136
- [4] Y. H. Jun. (2012). Relationship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2), 277-293.
UCI : G704-SER000009521.2012.19.2.005
- [5] H. S. Park. (2014).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ternalized problem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depress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7, 1-24.
UCI : G704-SER000009000.2014.27..011
- [6] Y. Y. Rhee. (2012).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and parental stress on children's mal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a control effect of family functions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2), 105-125.
UCI : G704-001932.2012.17.2.002
- [7] Y. M. Lim. (2019). Effect of 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 children: Mediating roles of school involvement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8(6), 615-627.
DOI : 10.5934/kjhe.2019.28.6.615
- [8] W. Y. Kim & N. E. Jung. (2020). The effect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on the self-esteem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4), 257-289.
DOI : 10.21509/KJYS.2020.08.27.8.1
- [9] S. H. Cho & S. Y. Park. (2020). Effects of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on the risk of adolescents' school dropout in the multicultural family: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Multiculture & Peace*, 14(3), 92-119.
DOI : 10.22446/mpisk.2020.14.3.005
- [10] S. W. Ann & J. A. Park. (2020).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biculture accept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379-388.
DOI : 10.14400/JDC.2021.19.1.379
- [11] S. W. Ann. (2020). *The effects of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to multicultural students on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e acceptance attitudes and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5511876>
- [12] J. A. Oh & S. J. Byoun. (2020). The experience of school dropout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7), 125-136.
DOI : 10.15207/JKCS.2020.11.7.125
- [13] Y. H. Kim. (2015). The adjustment experiences of high school dropout youths who chose to take qualification examinations. *Journal of Youth Welfare*, 17(2), 131-157.
UCI : G704-002137.2015.17.2.008
- [14] Y. O. Nam. (2016).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Welfare*, 18(4), 251-274.
DOI : 10.19034/KAYW.2016.18.4.11
- [15] S. K. Cho, E. T. Lee & E. K. Lea. (2016).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school maladjustment in the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intention to school dropout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3(1), 1-20.
UCI : G704-002141.2016.13.1.001
- [16] J. Y. Lee, S. Y. Kang, H. J. Kim, Y. Y. Lee & E. J. Yang. (201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erceived by school dropou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8(2), 225-241.
DOI : 10.35151/kyci.2010.18.2.014
- [17] N. M. Hong & H. J. Park.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125-151.
DOI : 10.22836/kaswpr.2017.8.2.125
- [18] M. B. Bronson.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Guilford.
<https://doi.org/10.1177/1087054706295669>
- [19] S. J. Jeon & H. M. Yoon. (2013). Effects of neglect,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153-179.
UCI : G704-SER000009000.2013.24..006
- [20] J. M. Chin & S. Yu. (2008).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immigrant mothers in Taiwa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8), 1141-1150.
<https://doi.org/10.2224/sbp.2008.36.8.1141>
- [21] R. H. Lee & H. I. Choi. (2020). The influence of maternal acculturative stress on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s through daily maternal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neglectful parent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5(2), 117-139.
<https://doi.org/10.13049/kfwa.2020.25.2.1>
- [22] J. S. Lee & J. M. Kim. (2021).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f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youth children's depression: The controlled mediated effect of national identity and peer relationship through social inhibitio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2), 59-88.
DOI : 10.21509/KJYS.2021.02.28.2.59
- [23] H. Seo & S. E. Lee. (2007).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agricultural region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25-47.

- UCI : G704-000666.2007.12.4.019
- [24] B. C. Lee & D. Y. Song.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4), 131-154.
DOI : 10.20970/kasw.2011.63.4.006
- [25] E. J. Lim, J. H. Noh & S. E. Kim. (2013). The factors that affect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middle-aged workers between type D and non-type D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1), 47-56.
UCI : G704-001949.2013.22.1.002
- [26] J. M. Malouff, E. B. Thorsteinsson & N. S. Schutte.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symptoms of clinical disord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7(2), 101-114.
<https://doi.org/10.1007/s10862-005-5384-y>
- [27] T. Matsudaira & T. Kitamura. (2006). Personality traits as risk fa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Japanes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 97-109.
DOI: 10.1002/jclp.20215
- [28] G. S. Kim & E. M. Kim. (2015). Effect of emotional problem of the youth on school life adaptation : Dependence on smart phone as mediating effec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1), 47-56.
UCI : G704-001949.2013.22.1.002
- [29] E. H. Oh. (2018). Impact of perceived peer attachment perceived on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6(1), 105-123.
DOI : 10.35151/kyci.2018.26.1.006
- [30] B. J. Lee, W. H. Min & J. E. Kim. (2014). A study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 An exploratory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al contextualism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317-346.
UCI : G704-000387.2014.21.8.024
- [31] K. H. Rubin, R. J. Coplan & J. C. Bowker. (2001).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 Rev Psychol*, 60, 141-171.
DOI : 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32] D. S. Sandhu & B. R. Asrabadi.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https://doi.org/10.2466/pr0.1994.75.1.435>
- [33] S. J. Lee. (1996).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The Journal of Yonsei Educational Research*, 9, 157-176.
<http://www.riss.kr/link?id=A19597058>
- [34] S. R. Lee. (199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http://www.riss.kr.libproxy.kwu.ac.kr/link?id=T8423595>
- [35] A. DeLongis, J. C. Coyne, G. Dakof, S. Folkman & R. S. Lazaru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2), 119-136.
<https://doi.org/10.1037/0278-6133.1.2.119>
- [36] C. H. Kim. (1995). Relationship of the daily hassle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trategies with emotional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7(1), 44-69.
<http://www.riss.kr/link?id=A100630886>
- [37] K. I. Kim & J. W. Kim. (1984). Korean standardized research(III) of SCL-90-R. *Mental Health research*, 2, 278-311.
- [38] K. S. Lee, H. J. Back, J. W. Lee & G. Y. Kim. (2011).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 reop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UCI(KEPA) : I410-ECN-0101-2013-334-001523004
- [39] S. H. Kim & K. Y. Kim. (1998).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155-166.
<http://www.riss.kr.libproxy.kwu.ac.kr/link?id=A100455144>
- [40] R. B. Kline.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Y: Guilford Press.
DOI : 10.1177/1049731509336986
- [41] J. P. Woo. (2017).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cept and understanding*. Seoul: Hannare Publishing.
- [42] L. Hu &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DOI : 10.1080/10705519909540118
- [43] Y. H. Kim & C. K. Han. (2017). Path analysis on child abuse and neglect, self-esteem,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mong children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8, 141-170.
DOI : 10.24300/JKSC.2017.06.58.141
- [44] M. S. Park. (2014).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parenting stres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6, 1-23.
UCI : G704-000946.2014..46.002
- [45] O. S. Oh & S. B. Kim. (2012). Looking into child-rearing experience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grounded theory paradigm model.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8(2), 235-260.
UCI : G704-000654.2012.18.2.007
- [46] R. H. Lee & H. L. Chang. (2019). The influence of maternal acculturative stress on the child's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ego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6, 65-95.
DOI : 10.24300/jkscw.2019.06.66.65

- [47] J. Y. Lee & K. J. Kwak. (2013).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SES) and home environment on the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151-165.
UCI : G704-000281.2008.21.3.001
- [48] G. H. Choi. (2020). The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1025-1045.
DOI : 10.22251/jlcci.2020.20.8.1025
- [49] K. H. Han & S. K. Kahng. (2021).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trajectory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8(1), 5-39.
DOI : 10.38082/SWPR.2021.18.01.5
- [50] C. H. Caldwell, M. A. Zimmerman, D. H. Bernat, R. M. Sellers & P. C. Notaro. (2002). Racial identity, mater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4), 1322-36.
DOI:10.1111/1467-8624.00474
- [51] H. Y. Jo & M. A. Oh. (2020).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relations with teachers 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siliency and acculturation str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571-590.
DOI : 10.22251/jlcci.2020.20.11.571
- [52] J. Berry, J. Phinney, D. Sam & P. H. Vedder.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https://doi.org/10.1111/j.1464-0597.2006.00256.x>
- [53] J. H. Kum, C. H. Son, S. E. Chae & S. G. Kang. (2013).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adjustment, and the relation with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119-143.
UCI : G704-000387.2013.20.2.001
- [54] Y. R. Woo & C. R. Nho. (2014).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solidarity between emotional and aggressive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6(2), 203-227.
UCI : G704-002137.2014.16.2.002
- [55] I. Y. Jeong. (2016).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42, 89-120.
UCI : G704-SER000002276.2016..42.006

이형하(Hyoung-Ha Lee)

장학원



- 2000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

정, 노인복지, 다문화 분야

· E-Mail : hhlee62@kwu.ac.kr